



Built to Lead

즉시 배포용: 2016년 3월 22일

주지사 **ANDREW M. CUOMO**

CUOMO 주지사, 등록 마지막 날들 동안에 전례 없는 **40,000**건의 유권자 지원서가 온라인으로 제출되었음을 발표

DMV의 온라인 유권자 등록 시스템이 3월 18일에 약 14,000건의 지원서를 받아 일일 신기록을 수립함

4월 대통령 예비선거를 위한 등록 시한이 급속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뉴욕주 대통령 예비선거를 한 달 미만 남겨두고 마지막 순간에 온라인 유권자 등록 활동이 전례 없이 급증했음을 발표하였습니다. 3월 10일부터 20일 사이에 주 최초 및 유일한 온라인 유권자 등록 시스템인 [MyDMV](#)가 최초 유권자로부터의 20,889건을 포함하여 40,883건의 유권자 등록 신청을 처리하였습니다. MyDMV는 또한 3월 18일 금요일에는 최초 유권자로부터의 7,128건을 포함한 13,961건의 유권자 등록 신청을 받아 사상 최고 기록을 수립하였습니다. 뉴욕주민들이 다가오는 4월 19일 대통령 예비선거에서 투표를 하려면 [3월 25일](#)까지 등록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온라인 유권자 등록 포털은 이 행정부가 민주주의의 장애물을 허물어 선거 과정에 더 많이 참여하도록 장려하는 노력의 핵심입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본인은 다가오는 대통령 예비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자신의 정보를 등록하거나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이 간단하고 편리한 도구를 사용해 점점 증가하는 수의 뉴욕주민들에게 합류하실 것을 독려합니다."

몇 가지 간단한 단계만 따르면 안전한 MyDMV 계정에 쉽게 가입하여 투표를 위해 등록하거나 기타 자택 주소 업데이트와 같은 다양한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계정을 생성하려면 뉴욕주 운전자 면허, 허가증 또는 비운전자 ID, 사회보장번호의 마지막 네 자리 숫자와 운전자 면허, 허가증 또는 비운전자 ID 기록에 표시된 우편번호를 사용해야 합니다. 가입이 완료되면 DMV는 조치를 위해 유권자 등록 신청서를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로 발송합니다. 뉴욕주민들은 뉴욕주 선거관리위원회 [웹사이트](#)에서 본인의 유권자 등록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 차량부 차장 Terri Egan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MyDMV 유권자 등록 웹사이트에서 업무가 분명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결과에 더 없이 기쁩니다. 우리나라의 장래에 투표하기 위해 한 표를 던지는 것은 우리가 미국인으로서

할 수 있는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일 중의 하나입니다. 등록할 시간이 아직 남아 있으므로 아직 하지 않은 분은 오늘 MyDMV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유권자 등록을 하려면:

- 미국 시민권자여야 합니다.
- 양식을 제출한 년도의 12월 31일까지 18세가 되어야 합니다(참고: 총선, 대통령 예비선거 또는 투표하고자 하는 기타 선거일까지 18세가 되어야 합니다).
- 선거 전 최소 30일 전에 현 주소지에 거주해야 합니다.
- 중범죄 혐의로 구속 중이거나 가석방 상태가 아닌 사람이어야 합니다.
- 금치산자로 판정을 받은 사람이 아니어야 합니다.
- 다른 곳에서도 투표할 권리를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유권자 등록 신청 프로세스에 대한 자주묻는질문(FAQs) 목록을 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차량관리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dmv.ny.gov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알아보기 바란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